일상의 초월, 경계 넘나들기로서의 축제

카니발의 유래와 현대적 의미

김태연*

Ⅰ. 들어가며
Ⅱ. 기독교 전통으로서의 카니발
Ⅲ. 리미널리티와 코뮤니타스로서의 카니발
Ⅳ. 리미노이드 현상으로서의 카니발
Ⅴ. 나가며

〈국문초록〉

축제로서 카니발(Carnival)은 익살스러운 가면과 의상으로 분장한 이들의 화려한 행진과 퍼레이드로 유명하다. 카니발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춤과 음악, 그리고 거리에서 벌어지는 유쾌한 파티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 비판과 풍자가 자유롭게 펼쳐지는 축제 속에서 카니발 참여자들은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시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사실 카니발은 종교전통에서 유래한 축제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일상과 탈일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놀이 장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경계 넘기로서의 축제인 카니발을 우리는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Victor Turner)가 지적한 현대 세계에서 나타난 리미노이드(liminoid)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고는 카니발의 유래로서의 종교적 전통과 그 역사를 보여주려 함과

*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교수

동시에, 오늘날에도 카니발 축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카니발의 기원으로서 사순절의 금식 전통, 사육제(사육제)로서의 전통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이미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왜 카니발이 축제로서 현대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의미를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환영받고 현대적으로 변형, 전개되고 있는 카니발의 의미를 개괄하기 위해, 축제와 카니발에 관련한 인류학적인 연구를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카니발, 축제, 금식/금육, 빅터 터너, 커뮤니타스, 리미노이드

Ⅰ. 들어가며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축제를 경험한다. 음악이나 미술, 공연과 관련된 문화예술 축제,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음식 축제, 봄에 만발한 꽃이나 가을의 단풍 등 자연을 즐기는 축제, 각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즐길 수 있는 지역 전통, 풍물 축제, 불꽃놀이 축제 등, 다수의 축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진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도 주로 가족과 친지와 보내는 시간이긴 하지만 일종의 축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설날은 새해를 다 함께 맞이하며 축하하는 축제이고, 추석은 햇곡식과 과일의 수확에 감사하는 축제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축제란 대부분 종교전통과 깊은 연관 관계에 놓여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등의 페스티벌(festival), 독일어 페스트(Fest)는 라틴어 형용사 ‘festus’(경축하는)과 ‘dies’(날)이 결합된, ‘경축하는 날’(dies festus)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페스티벌을 비롯하

여 영어의 'feast' 또한 동일한 어원으로부터 비롯되어 'feast day'나 독일어에서의 'Festtag'은 특별히 두드러지고 구분된, 초자연적인 본질이 내포되어있다고 믿는 성스러운 날을 의미한다. 이는 신적인 함의를 담고 있어 성스러운 축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축일에서 비롯된 축제는 본래 종교적인 의식의 거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축제의 종류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하더라도, 의례적인 경과 및 주기적,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시간을 그 공통점으로 한다. 서양 전통에서 본래 축제라 함은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다. 또한 종교적 의식이 거행되는 특별한 날은 늘 해당 종교의 절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1)]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전통에서 '축제'(祝祭)란 과연 무엇인가? 祝과 祭가 결합된 형태의 이 개념은 사실상 한국 근대시기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신조어로 추측된다. "祝(賀)하는 祭(祀)"(축하하는 제사)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2)] 현재 축제란 용어는 글로벌화된 문화적 여건 속에서 이제 영어의 festival과 등가의 의미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다만 한국의 경우, 지역의 풍습이나 문화, 먹거리 등과 연계될 때 축제라는 단어가 붙지만, 외래적인 문화의 향유와 관련된 것은 '페스티벌'로 직접 표현하는 경우가 좀 더 빈번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어르신들의 환갑이나 회갑을 파티라고 하지 않고 잔치로 표현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생일잔치는 생일 케이크를 놓고 고깔모자를 쓰고 축하하며 파티라고 일컫는 경향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

1) Phillip Borgeaud, "Feste/Feiern: Religionswissenschaftlich", Hans Dieter Betz etc. (ed.),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F–H 3*, Tübingen: Mohr Siebeck, 2000, p.86.

2) 배상복, 「[우리말 바루기] '축제'는 일본식 한자어」, 『중앙일보』, 2012년 5월 1일: https://korean.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052894&ctg=

이제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축제/페스티벌이라는 말은 다 함께 즐기는 문화적 향유를 뜻하는 집단적인 유희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축제/페스티벌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설날, 대보름, 추석, 단오제, 동짓날 등은 축제일보다는 주로 '민족 고유의 명절'로 일컬어진다. 명절 또한 제사나 차례, 종교적인 풍습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특히 단오(端午)의 경우 '강릉 단오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현대의 축제"로서 변모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의 대표로 조직된 단오제위원회와 문화전문가들의 기획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한국의 관광문화자원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로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는 축제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강릉단오제는 200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3] 독일의 경우에도, 유명한 라인지역의 카니발(Rheinischer Karneval)이 2014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4]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가 희박해진 상황 속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축제의 의미를 성찰할 때 종교성에 대하여 생각해본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 즉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현대인의 축제에 있어 종교 의례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현재 한국에서만 보아도 행해지고 있는 많은 축제들이 상업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세속화된 사회, 그리고 첨단 과학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3) 황루시, 「현대의 공동체와 축제의 기능: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2집, 2006.6.30, 1-25쪽.

4) 다음 유네스코 사이트를 참조: https://www.unesco.de/kultur-und-natur/immaterielles-kulturerbe/immaterielles-kulturerbe-deutschland/bundesweites-45 (2018년 10월 28일 확인).

있어 축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었던 종교적 의미를 되새긴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아직까지 수행되고 있는 축제들의 경우에는 종교적 의례적 의미의 정도가 제각각이자 희미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상실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현대인에게도 축제의 종교적-의례적 의미가 망각되거나 미신적인 것으로 폐기될 것으로 치부되기 보다는, 분명히 생에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으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종교전통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가공휴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각각 봄과 겨울에 거행되는 불교의 석가탄신일, 그리고 기독교의 성탄절이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종교관련 축제 외에 요즈음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주로 젊은 성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축제로는 할로윈(Halloween)이 있다. 할로윈은 미국으로부터 전해졌으며, 그 인접한 기원은 바로 기독교의 만성절(All Saint's Day)이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할로윈은 종교적 유래와 의미와는 상관없이,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럽게 생긴 유령이나 몬스터, 해골 등으로 분장하여 즐기는 일종의 일상탈출이 가능한 유희의 축제날이 되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의 축제일인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축제일이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다. 특히 부활절과 성탄절은, 한국에서의 설날과 추석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 귀성길과 귀경길이 연출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문화권에서 이러한 부활절과 성탄절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시기인 사순절 기간 이전에 벌어지는 축제는 그 위치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카니발이라고 불리는 이 축제는, 우리에게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Rio carnival)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벌어지는 카니발은, 그 하루를 준비하

기 위하여 일 년을 소모할 만큼 대단한 축제일로서 매우 상업화 되어있다. 엄청난 물량과 화려함으로 치장한 유명 대도시들의 카니발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의 뉴스를 장식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인 소도시의 카니발은 카니발을 개최하는 각 도시의 특성대로 소박하고도 시민 참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정치권에 대한 해학과 풍자가 이루어지는 형태로도 카니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카니발에서 특징적인 것은 아름답기보다는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가면, 화려한 분장과 소품이 동원된 사람들의 행렬이다. 화려한 춤과 음악도 중요하지만 카니발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의 나와는 전혀 다른 무엇으로 분장, 변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카니발은 종교전통에서 비롯된 축제이지만 일종의 경계 넘나들기를 시도하는 놀이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가 주목한 현대사회에서 발현되는 리미노이드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본고는 카니발에 과거 역사에 대해 고찰하며 그 축제와 의례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카니발의 기원인 기독교 전통에서의 사순절 기간의 금식과 금육 전통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사순절 시작 전의 축제로서의 카니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후 카니발이 비신화화와 세속화가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와 현대인들에게 있어 카니발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축제와 카니발에 관련한 인류학적 작업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카니발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기독교 전통으로서의 카니발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순수한 기독교적 전통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와 지역이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면을 쓰고 유희를 즐기는 것은 늘 있어왔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교적 관습들은 달갑지 않았겠지만 농경사회의 주기 속에 뿌리내린 계절적 축제들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기독교적 의미와 색채가 가미되어 유지되는데, 카니발도 그 중의 하나이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놓인 카니발은 본래 로마의 2월 축제였다.[5] 카니발은 부활절과 사순절 이전에 펼쳐지는 기독교의 축제이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 성경의 복음서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은 안식일 전날이었다. 특히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은 유월절 축제 오후에 일어났다. 이후 부활은 예수가 처형되고 삼 일째 되는 날이었다. 엇갈리는 설명이 있으나 종합해볼 때,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금요일은 수난과 죽음,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 일요일이 부활절로 계산이 되는 것이다. 이에 부활절이 유대교의 유월절 이후 일요일로 결정된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이전의 40일간의 준비기간이 확정된다.

1. 카니발의 어원적 유래

카니발과 그에 상응하는 독일어 '파스트나흐트'(Fastnacht)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원적 기원뿐 아니라

5) 윤선자, 『축제의 문화사』, 서울: 한길사, 2008, 58쪽.

카니발의 풍습 또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이전의 전통들과의 연계 속에서 논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제 카니발은 기독교의 사순절 전통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전통 또한 거기에서 비롯되어 계속 발전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6] 카니발(영: Carnival; 독: Karneval)은 라틴어의 carislevamen, carnisprivium, carnetollendas 즉 '고기를 치워버린다'는 뜻에서 유래한다. carnelevare로 쓰이던 단어는 carnelevale로 발음이 변화되고, 여기에서 농담조로 carne-vale, 즉 "고기여, 안녕!"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게 되었다.[7] 사육제(謝肉祭)라는 번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니발은 고기를 금한다는 금육(禁肉)에서 비롯된 용어이기에, 이것이 기독교의 금식기간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육식을 금하거나 금식을 권장하는 대표적인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부활절 이전까지의 사순절 기간이다.

일상을 탈출하여 해학과 익살이 넘치는 축제날이 금식과 연관되어 있음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금육과 금식의 기간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의 축제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날을 최선을 다해 즐기도록 이끄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카니발의 바로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절기가 시작되니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카니발이라는 축제의 기쁨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원적 고통과 수난과 정 반대의 지점에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카니발에 해당하는 단어로 독일에서 쓰이는 파스트나흐트(Fastnacht)에 대해서도 기독교적 출발이 아닌 매우 먼 고대로부터 비롯된 혹은 소

6) Hellmut Rosenfeld, "Fastnacht und Karneval: Name, Geshichte, Wirklichkeit" *Archiv für Kulturgeschichte* 51, 1969, p.181.

7) Ibid., p.179.

위 이교적(heidnisch) 축제로부터 기원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어원 연구도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기원한다. 파스트나흐트는 중부 고지대 독일어에서 유래하는데, vas(t)(en)nacht, 즉 '금식 (시작) 전날 밤'이란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Fasten'은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Fasching'과 더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다. 'Fasching'은 본래 'vaschang', 'vastschanc'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금식기간에 마시는 음료를 (컵에) 따른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8] 우리에게는 금식 음료를 따라낸다는 표현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수도원의 금식전통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순절 금식기간 동안 수도원의 승려들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하고 진한 맥주를 만들어 마시며 체력을 유지하려 했다. 이 맥주를 파스트비어(Fastbier), 슈타크비어(Starkbier)라 혹은 도펠보크(Doppelbock)라고 부른다.[9]

2. 금식과 금육, 재의 수요일

우리는 카니발이나, 파스트나흐트, 파싱 등의 용어가 금식과 금육과

8) Moser, Hans, "Fasnacht, Faßnacht, Faschang", *Schweizerisches Archiv für Volkskunde* 68/69, 1972/73, p.444; 다음 책에서 재인용: Werner Mezger, "Masken an Fastnacht, Fasching und Karneval Zur Geschichte und Funktion von Vermummung und Verkleidung während der närrischen Tage", Alfred Schäfer/Michael Wimmer (Hrsg.), *Masken und Maskierungen*, Wiesbaden: Springer, 2000; 'Vast-schanc'라는 단어는 13세기에서 처음으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9) Michael Weier, "Fasten mit Starkbier: 'Die Menschen müssen bei Kräften bleiben'" *Stuttgarter Nachrichten* , 2014. 03.07. https://www.stuttgarter-nachrichten.de/inhalt.fasten-mit-starkbier-die-menschen-muessen-bei-kraeften-bleiben.a6fc34f3-601c-457e-883b-e3a30eb57fad.html

연관되어 비롯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금식과 금육의 전통은 언제 어떻게 출현하였을까? 그것이 과연 기독교만의 전통인가? 금식행위는 종교사적으로 재앙을 피하거나 순화 내지 정화(카타르시스)적 동기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모든 종교문화전통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금식은 이에 반드시 금욕적인 동기로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해롭고 위험한 힘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악령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샤먼이나 주술사는 자신의 주술적 힘을 획득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금식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기도 했다. 통과의례적 의미로서 수행된 금식 또한 자기 정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세례식이 거행되기 이전에 세례 받는 이는 금식으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으며 그 날을 준비했다. 자기 수양적이거나 예언자적 의미에서의 금식 또한 있었으니 이는 시내산의 모세, 광야에서의 예수, 히라산 동굴에서의 무함마드, 보리수나무 밑에서의 부처 등이 모두 금식 수행을 했다. 윤리적 차원으로서 금식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또한 다양한 종교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금식은 애도를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파라오가 사망했을 때 이집트인들은 금식했으며 오딧세이에서 헥토르의 죽음 후에 프리아모는 금식했다. 구약성서에서 다윗은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죽었을 때 이를 애도하며 금식했다.[10] 금식의 기독교적 의미는 특정한 시기인 사순절이나, 기독교적

10) Peter Gerlitz, "Fasten/Fasttage: Religionsgeschichtlich," Gerhard Krause, Gerhard Müller,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I,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3, pp.43.

의미에서 전적으로 중생한 새 사람으로서의 탄생을 뜻하는 세례 이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금욕 혹은 수덕(Askese)을 위해 자신의 몸의 욕망을 다스리는 중요한 수행의 수단이기도 했다.

기독교 전통으로서의 장기간의 금식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기간인 사순절기에 이루어진다. 사순절 기간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단 한 번의 의무적인 금식기간이었다. 또한 사순절 전 기간에 걸친 금식은 아니었다. 초대교회 전통에서도 금식이 강조된 기간은 부활절 전 주, 특히 부활절 바로 2-3일 정도였다. 중세 시기에는 부활절 전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강조했으며 금식이 참회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리학에 따라, 오후 3시로 식사시간을 미루고 특히 금육했지만, 포도주는 허용되었다. 생선의 섭취는 제한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선보다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11]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 즉 40일의 기간은 예수의 수난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간과 연관된다. 개신교의 경우 종교개혁가 루터는 수도원 생활 동안 금식이 자기 수행의 효과보다도 인간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은 것을 경험했기에, 의무적인 금식을 강조하지 않았다. 또한 스위스 취리히의 종교개혁가 츠빙글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의 금육의 의무를 어긴 이들을 변호하였는데, 이 금육 의무에 대한 논란 및 논쟁으로 촉발된 것이 바로 취리히 시의 종교개혁이었다.

그렇다면 금식과 금육의 시간을 좀 더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 전통에

11) Stuart George Hall, Joseph H. Crehan, "Fasten/Fasttage III: Biblisch und kirchenhistorisch,"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I,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3, pp.52-55.

서만 카니발을 성대하게 치룰까? 아무래도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 전통 속에서 카니발이 훨씬 성대하고 집중적으로 열리는 경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 국가로는 이탈리아와 브라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마지막에서 잠시 살펴볼 독일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우세한 지역인 쾰른과 마인츠의 카니발 축제가 가장 유명하다. 하지만 카니발은 이제 국민축제(Volksfest)로 일컬어지는 만큼 신교와 구교 등 종교와는 상관없이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보통 11월과 12월에 각 도시의 카니발위원회(Karnevalausschuss)에 미리 신청 및 등록을 해야 다음 해에 열리는 카니발에 참가가 가능하다. 카니발의 시작일은 지역마다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종료시점은 교회력에 따라 재의 수요일(Aschermittwoch) 시작 전날이다.

Ⅲ. 리미널리티와 코뮤니타스로서의 카니발

앞에서 우리는 카니발의 종교적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즐거운 집단적 놀이문화로 이해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독교의 교회력과 시기적으로 긴밀하게 연동되고 있다. 또한 카니발은 소위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권에서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통해 우리는 카니발을 종교적 의례와 연관지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카니발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카니발이라는 축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범주로서 ‘통과의례’와 ‘리미널리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축제의 분석 범주로서의 '통과의례'

카니발은 일상에서 사순절 금식기간으로 이동하는 중간단계로서의 종교적 제의로부터 출발한 축제이다.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넘어가는 카니발의 경계성을 주목해본다면, 빅터 터너(Victor Witter Turner, 1920-1983)가 제시한 '리미널리티' 개념을 통해 우리는 축제의 경계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종교적 제의에 대한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념은 아놀드 판 헤넵(Arnold Van Gennep, 1873-1957)의 '통과의례'이다.[12] 빅터 터너는 이 통과의례 개념을 차용하여 심화 발전시켰다. 판 헤넵의 대표적 저서 『통과의례』(*Les rites de passage*, 1909)는 20세기 초반의 저술이지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역작이다. 물론 그가 당대보다 지금 주목받는 이유에는 빅터 터너가 이 개념을 풍요롭게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1985년의 영역본으로부터 번역한 것이 그의 판 헤넵의 유일한 한국어 역본이다.[13]

리미널리티 개념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판 헤넵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시대에 있어 이제 '통과의례'란 개념은 흔하게 쓰이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반 헤넵이 사용하기

12) 반 헤넵은 현재는 독일이며 당시에는 뷔템베르크(Württemberg) 왕국의 루드비히스부르크(Ludwigsburg)에서 태어났으며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프랑스에서 성장하였다. 종교사학자이자 민속학자로서 다방면으로 박식하고 재능이 많은 학자였다.

13)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전경수 교수의 번역본의 제목, A. 반 겐넵 저, 전경수 역, 『通過儀禮』, 서울: 을유문화사, 1985.

시작하였다. 판 헤넵은 통과의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리미널리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책, 『통과의례』에서 당대의 자료들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는 각 나라 혹은 부족들에 관한 민족지 데이터들은 지금 현시대에도 영향력 있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그의 의례에 대한 통찰을 통해 제시한 '통과의례'(rites of passage) 개념 정의와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 것은 현재에도 우리가 인간의 삶을 분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렌즈로 활용될 수 있다.

그는 통과의례를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또는 특정의 사회적 또는 우주적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의 통과에 수반되는 모든 의식의 유형....이와 같은 전이(transition)"로 정의한다. 통과의례의 세 가지 단계는 "분리 의례(rites of separation), 전이 의례(rites of transition), 통합 의례(rites of incorporation)"인데 이것은 다시 '역'(閾, limen)의 의미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전역치 의례(preliminal rites), 역치 의례(liminal rites), 후역치 의례(postliminal rites)"라고 표현할 수 있다.[14]

반 헤넵은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진화론적 사고방식의 여파가 아직도 시대정신으로 지배적이었으며 야만에서 문명으로, 종교적으로는 애니미즘에서 다신론으로, 최종적으로는 유일신론으로의 단계적인 발전 및 진화에 대한 믿음이 팽배한 시절에 활동했다. 서구에서의 인류학과 종교학은 물론 모든 학문 분과들이 이러한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문명과 야만을 철저히 분리하며 자신들을 문명의 축에 두고 비서구권을 재단하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학문적 담론이 지배하던

14) 위의 책, 40-41쪽.

시기에, 반 헤넵은 놀랍게도 비서구권의 민족지(Ethnographie)와 유럽 농촌의 주민집단에 관한 민족지 사이에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전제 속에서 그의 연구를 전개했다. 물론 농촌집단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는 여전히 편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세기 초의 시대정신을 극복한 학자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15] 이로서 통과의례 이론은 당시의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 모든 인간과 사회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범주로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게 되었다.

우리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주요한 순간들에 통과의례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임신과 출산, 백일 기념과 돌잔치, 결혼과 신혼여행, 죽음과 장례식 등, 전 생애 속에서 통과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 주로 기독교를 생각해보면 – 세례나 견신례, 성지순례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성탄절 이전의 성탄 전야(크리스마스이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리고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날 보신각에서 타종하며 그 다음 해를 맞이하는 의식 등 또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카니발 또한 전이(transition) 의례로서의 사순절 시작 전의 축제로 바라보며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반 헤넵이 말한 일종의 '전역치 의례', 즉 '분리'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카니발은 사람들이 본래의 자신의 위치에서 분리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부활절을 통합 의례로 바라본다면 카니발과 사순절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전이 의례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이의 기간인 카니발 동안 남성과 여성의 성을 뒤바꾸거나 어른이 아이처럼 분장하

15) Sylvia M. Schomburg-Scherff, "Arnold van Gennep (1873-1957)", Axel Michaels (ed.), *Klassiker der Religionswissenschaft: Von Friedrich Schleiermacher bis Mircea Eliade*, München: C. H. Beck, 2004, pp.225-226.

는 것처럼, 기존의 공고한 사회적 위계질서의 역전을 보여주며,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모습으로 변장한다. 그리고 일상의 관습과 질서를 탈피하고 과장하거나 인간 세상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일을 터부를 벗어나 수행할 수 있다.

헤넵의 통과의례에 대한 논의는 이토록 우리의 삶의 단계에 적용시켜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각 분리, 전이, 통합의 단계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과 각 단계에 내포되어 있는 풍부한 상징들의 의미체계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빅터 터너의 논의는 반 헤넵의 논의를 받아들여 심화한 인류학적 작업이었다.

2. 빅터 터너의 리미널, 리미널리티, 커뮤니타스

빅터 터너는 해석상의 전환(interpretative Wende)을 이끈 영향력 있는 문화학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을 비롯하여 소위 인간과학(Humanwissenschaft, human sciences)의 방대한 영역을 포착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비교적 균질하게 인식되는 사회구조 및 사회를 둘러싼 환경을 분화하여 조명할 수 있는 분류와 의미체계, 그리고 변혁의 과정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 터너는 개인적, 사회적 변화의 과정과 갈등, 위기로 인해 비롯되는 단절의 상황에 주목함으로써 제의적 상징의 역동성과 그와 더불어 작동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 현지 조사 이후에 종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개인과 사회 및 문화를 가장 근본적으로 관통하는 종교적 의미를 고찰했다.

반 헤넵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통과'에 주목했다면, 빅터 터너는 이 단계도 저 단계도 아닌 접경지대, 즉 경계선 사이에 놓인 문턱이라는 시공간에 그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써 탄생하게 되는 것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통과의례의 리미널한 기간"(Betwixt and Between: The Liminal Period in Rites de Passage, 1964)이라는 연구논문이다.[16] 그의 저술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논문은 저자 자신 또한 영국에서 미국의 코넬 대학으로 가기 위해 이주를 준비하며 비자를 준비하던 리미널한 시기에 탄생했다.[17] 또한 이 1960년은 20세기 초반에 출판된 반 헤넵의 『통과의례』가 영문으로 번역된 때이기도 하기에 영미 인류학계에서 가장 최신의 책이었고 빅터 터너가 이를 접하게 된 것이다.[18]

'리미널'(liminal), '리미널리티'(liminality)는 라틴어 리멘(limen)에서 비롯된 개념으로서 리멘의 의미는 '식', '문지방', '문턱'이라는 뜻이다. 이는 헤넵이 말한 전이의 단계에 속하는데, 공간적인 의미뿐 아니라 시간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인 문지방 단계의 시공간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나 의례, 축일의 전날 혹은 전야를 의미한다. 빅터 터너는 헤넵의 리미널리티에 대한 논의를 좀 광범위한 문화적 의미로 확장시킨다. 특히 그는 인간의 복잡다단한 문화적 상징들을 분석하기 위해 비교 상징학(comparative

16) 원래는 1964년, 미국 민족지학회지에 실린 글이며, 다음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Victor Turner, *The Forest of Symbols: Aspects of Ndembu Ritual*,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17) Bräunlein, p.333.

18) Arnold van Gennep; Monika B. Vizedom & Gabrielle L. Caffee, *The Rites of Passage*, London & Henley: Routledge and Kegan Paul, 1960; Peter J. Bräunlein, *Zur Aktualität von Victor W. Turner: Einleitung in sein Werk*, Wiesbaden: Springer VS, 2012, p.51.

symbology)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리미널과 리미널리티 개념을 상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 상징학에 대한 선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교 종교학이나 비교 문화학도 아닌, 터너가 제안하고 있는 비교 상징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는 비교 상징학이 기호나 상징을 분석하는 기존의 기호학(semiotics, semiology)에 비해서는 그 범위가 협소하나, 상징 인류학(symbolic anthropology)보다는 넓다고 설명하고 있다.[19] "기호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인 기호학은 모든 기호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광범위하기에 기호학보다는 비교 상징학의 범위가 좁다는 것은 이해가 쉽다. 그러나 상징 인류학과의 비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상징 인류학을 대표하는 학자는 메리 더글러스(Mary Douglas, 1921-2007)이다. 더글러스는 상징과 그와 연관된 기표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상징에 얽힌 개인이나 집단의 표현행위에 주목했다. 제임스 프레이저(James Fraser)와 같은 고전 사회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종교적 제의나 마법을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계가 있어, 그것들을 과학성의 전 단계에 머무른 행위, 자연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해 나온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발현된 행위의 표본에 집착하여 그 상징적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 결과이다.

반면 더글러스는 제의이건 마법이건 어떠한 행위를 통해 사회 존속 및 유지를 위해 제거, 배제시킴으로써 사회가 얻어내는 효과라는 의미를 발견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더글러스는 원시인 혹은 야만인 대 현대 문명인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인류학에서 제거하는 공헌을 했

19) Victor Turner, "Liminal to Liminoid in Play, Flow and Riual: An Essay in Comparative Symbology", *Rice University Studies*, 60: 3, 1974, p.53.

다. 문명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첨단의 과학기술문명을 자랑하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유지를 위한 제거와 배제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글러스는 또한 과거 고전적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의 인류학자들이 각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른 사회의 비교하는 것을 의문시 했던 것을 넘어서려 했다. 그는 상징들의 의미와 느낌을 단순화하여, 몇 개의 큰 부류로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을 시도했다. 이로써 비교를 다시 인류학의 중요한 방법론적 도구로 가지고 왔다.[20]

빅터 터너는 더글러스의 기여를 수용하면서도, 더글러스가 상징에 대한 발화나 문헌적 서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의 비교상징학에서는 "제의와 예술 속에 있는 많은 종류의 비언어적 상징들"에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기에, 문자로 표현된 장르, 각종 내러티브, 그리고 행위적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비언어적 형식의 활동까지 망라한다.[21] 이때 터너는 상징을 정적인 사물(thing)로 인식하기보다는 사건(event)로 파악했다. 따라서 비교상징학에서는 상징을 무시간성, 시원성에 고착시켜 바라보지 않고 사건인 상징이 등장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 그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그는 상징을 "시간을 뛰어넘고 형식을 바꾸면서 의미를 버리고 모으는 사회-문화적인 역동적 체계"로 정의한다. 상징은 기표와 기의로서 인식 가능하지만 상징이 떠오르는 복잡다단하고 가변적인 맥락과 그 맥락에 포함되는 인간의 가변성을 고려한다면, 상징은 인간 행동

20) Hans Peter Hahn, "Mary Douglas: Symbolische Anthropologie und die Entdeckung der Konsumkultur", Stephan Moebius, Dirk Quadflieg (Hrsg.), *Kultur. Theorien der Gegenwart*, Würzburg: VS Verlag, 2011, pp.161-162.

21) 빅터 터너 저, 이기우・김익두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2011, 35쪽.

의 요인으로서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잠재력'을 내포한 것이다.[22] 사회적 변화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상징들은 인간 집단이나 개개인이 추구하는 관심사나 목표, 이상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비교상징학을 통해 우리는 사회 전반의 모든 현상,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부족사회에서 현대 문명사회에까지 모든 사회형태에서 드러나는 상징들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빅터 터너의 비교 상징학이 탄생하는 배경 또한 자신의 실험적 학문을 기반에 두고 있다. 학문적으로 인류학적 전통이 풍성한 시카고 대학에서 활동하게 된 70년대에, 부인 에디트 터너와 함께 매주 목요일 밤에 자신들의 집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그곳에서 터너는 학문적 동료들과 제자들과 더불어 열띤 토론의 시간은 물론이고, 퍼포먼스 - 예를 들어 아메리카 인디언의 이로쿼이 제의와 같은 것을 직접 수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목요일 밤의 세미나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판 헤넵의 전이단계 제의-리멘의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실험적 장이 되었다. 이 틈새의 리미널리티 시공간 속에서 참여자들은 선생과 제자라는 위계질서가 무화되고 기존의 정형화된 상태에서 벗어난 '커뮤니타스'(communitas)적 사회 상태를 경험했다.[23]

여기에서 '커뮤니타스'는 사회구조, 즉 제도화된 위계질서를 벗어나 구성되는 '탈구조/반구조(anti-structure) 공동체'를 뜻한다. 커뮤니타스 속에서 각 사람은 개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되며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나 신분, 역할들에서 벗어나 모두 평등한 인간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한다. 리멘, 즉 문턱의 상태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커뮤니

22) *Ibid.*, pp.36-38.

23) Peter J. Bräunlein, *Zur Aktualität von Victor W. Turner*, Wiesbaden: VS Verlag, 2012, pp.63-64.

타스와 그 속에서 이전의 지위나 차이들이 무화되거나 전복되어버린다. 하지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속(俗)과 성(聖), 즉 구조(structure)와 반구조(커뮤니타스)라는 이분법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다. 터너는 커뮤니타스의 성격을 설명하며 마틴 부버가 강조한 "인간의 사이성"(das Zwischenmenschliche: 혹은 인간상호성)을 언급한다.

리미널리티 영역인 커뮤니타스에서 터너가 주목한 것은 커뮤니타스를 형성하는 인간들의 관계성인 것이다. 구조와 반구조인 커뮤니타스는 개인이나 집단의 발전적인 주기(cycle)에서 변증법적으로 존재하고 드러난다.[24] 커뮤니타스를 통해 사람들은 구조로부터의 해방과 기존 질서의 해체를 경험하고, 커뮤니타스라는 틈새 시공간, 즉 전이의 국면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다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기존의 사회구조에는 새로운 힘이 충전될 수 있다. 이렇게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카니발의 과거 종교적 의미 외에도 현대의 유희로 펼쳐지는 퍼포먼스로서의 카니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Ⅳ. 리미노이드 현상으로서의 카니발

터너는 리미널 현상과 리미노이드 현상을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택성(option)은 리미노이드 현상 속에 널리 스며들어 있고, 의

24) 빅터 터너 저, 박근원 역, 『의례의 과정』,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148쪽. 터너는 『의례의 과정』에서 "...내가 '구조'와 '커뮤니타스' 개념을 대립시킨 것이 다소 부적절했음을 알 수 있다. 커뮤니타스의 전이적 상황에도 일종의 구조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래드클리프브라운이 말한 사회구조가 아니라 상징과 관념으로 된 구조, 교육을 위한 구조다."라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빅터 터너 저, 강대훈 역, 『인간사회와 상징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타스』, 서울: 황소걸음, 2018, 308쪽.

무성(obligation)은 리미널 현상 속에 널리 스며들어 있다. 전자는 놀이이자 선택이고 후자는.....두렵기까지 한 어떤 깊은 진지성의 문제이다." 부족의 제의에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그 효력에 대해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임한다. 무질서와 유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신실한 종교적 믿음과 의무감이 작동한다. 그러나 현대적인 카니발은 전적으로 놀이의 장르가 되었다. 의무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참여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으며 참여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카니발은 유희적 의미로서만 그 의미가 있는 리미노이드 현상인 것이다.[25] 그리고 일시적이나마 카니발을 위해 형성되는 공동체를 우리는 커뮤니타스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터너가 커뮤니타스에 대해 상술한 자신의 저서, 『의례의 과정』에서 언급한 할로윈(Halloween)의 내용을 살펴보며 카니발의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만성절 전야 축제인 할로윈에서 나이의 역전, 성별의 역전적 의례의 흔적을 발견한다. 사회에서 약자인 어린이들이 무시무시한 괴물이나 악당의 가면을 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treat or trick!"(먹을 것 줘. 안 그러면 장난칠 테야!)라고 외치는 순간, 그들은 사회의 구조가 역전, 즉 전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며 사회의 강자인 어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주로 북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면축제가 할로윈이라면, 유럽에서는 카니발이 성대하게 열린다. 축제로서의 카니발에는 다양한 축제의 양상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희극적 퍼포먼스와 가면 및 가장 행렬, 풍부한 음식 말이다.[26]

---

25) 빅터 터너 저, 이기우・김익두 역, 앞의 책, 71-72쪽.

26) 할로윈이 10월 31일에 이루어진다면 만성절은 그 다음날인 11월 1일이다. 만성

터너는 그로테스크하거나 몬스터와 같은 마스크와 모형들을 사용하는 것은, 입문의식이라는 리미널한 단계에서 사회문화적인 일반적 상식을 소설, 심지어 희한한 방식으로 유희적으로 재결합시킨 문화 구성요소로 분리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례 참가자들은 번갈아가며 그들의 사회와 우주, 그리고 그들을 창출하고 유지시키는 권력을 성찰하도록 강요되고 격려 받는다.[27] 이렇게 현대의 카니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역전적 유희의 의미에는 사회 체제와 그 순응에 대한 전복의 의미가 매우 강하게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례에 대한 터너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회를 기계론적이며 기능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사회 인류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카니발은 생활과 문화세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가. 우선 독일에서 유명한 카니발 명소로는 노드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쾰른(Köln)과 마인츠(Mainz)의 카니발이 있다. 이 지역의 카니발은 독일 국내외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우 성대하고 유쾌한 대표적 축제 중의 하나이다. 진행되지만 카니발 준비를 위한 모임은 그 전 해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시작 된다. 그리고 이 카니발 축제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직장인들이 무려 2주간 휴가를 내기도 한다. 카니발 축제는 단순한 동네, 문화, 산업이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 이 카니발 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은행 직원들이 광대와 같은 재미

절(lat. Sollemnitas Omnium Sanctorum)은 그 문자적 의미대로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것이다. 모든 성인 및 성화와 성상을 우상으로 간주하는 종교개혁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개신교는 이를 축일로 인정하지 않기에, 만성절은 로마 가톨릭 전통 속에서 기념되는 축일이다.

27) Hans-Ulrich Sanner. ""A Message about Life": Performance and Reflexivity in Hopi Indian Ritual Clowning", Axel Michaels etc. (ed.) *Ritual Dynamics and the Science of Ritual* (IV),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1, pp.114-115.

있는 코스튬을 걸치고 맥주로 고객들을 환대하기도 한다. 이 카니발의 의례 속에서는 일상의 관습을 넘어서는 다양한 양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카니발의 관습으로는 양 볼에 하는 가벼운 키스(Bützen, Bützje)가 있는데, 이는 성적인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연대적 의례와 같다.[28]

온 마을과 도시 전체가 카니발을 성대하게 진행함으로 구현되는 여러 의미들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정치적 풍자"와 "성역할의 전복"이다. 현존하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국가와 정치시스템은 강요하거나 의심한다 하더라도 카니발이 허용하는 새로운 역전의 구조에서 그 정치적 역할놀이의 정당성은 회의되고 풍자된다. 그것은 공고하게 놓여 있는 정치적 구조의 순응을 전복하고 새롭고 창조적인 삶의 양식과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례적 의미가 있다. 또한 그것은 정치적 강자와 약자, 문화적 강자와 약자의 이원론적 대립을 넘어서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비동질적 역할놀이에 대한 해체와 새로운 전복을 담아내기도 한다. 성 역할의 희극과 분장의 교체가 함의하는 바에는 성 역할의 새로운 해방과 전복이 있다.

V. 나가며

축제는 축하하는 날이다. 거기에는 결실과 성과에 대한 기쁨과 나눔이 있다. 하늘과 땅과 함께 하는 인간의 문화가 축제의 과정에서 다시 하늘과 땅의 관계에서 새롭게 재편되고 재현되고 공유된다. 본 연구는

28) 쾰른 카니발을 소개하는 독일 국제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영상자료를 참조함: https://www.dw.com/de/die-wahrheit-%C3%BCber-deutschland-karneval/a-5246994

카니발이라는 축제에 대하여 역사적, 종교적, 의례적 관점으로 조명해 보았으며 문화적이며 인류학적으로 공유된 기억과 의례에 대해 고찰하려 했다. 오늘날 그 축제의 제의적 얼굴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비종교적 차원으로, 공동체의 경험에서 자본주의적 양식의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발이라는 축제의 역사적인 계보와 인류학적인 의미에서의 카니발의 성격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카니발이라는 축제에 내포된 종교적, 인류학적 함의는 현대인이 즐기고 환호하는 축제의 의례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리미널리티' 개념을 통하여 본고에서는 카니발의 축제를 단순한 의례적 반복의 형식이 아닌 인간 문화의 '창조적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카니발은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현대적 유희이자 의례이다. 탈종교화 세속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쳇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회적 틀과 위계질서를 벗어나 거꾸로 전복된 시공간을 집단적으로 체험하는 리미노이드로서의 카니발은 현대인들에게 무척 매력적인 축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비극이 아닌 희극적이며 익살과 유머, 낭만이 넘치기에 더욱 그러하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커뮤니타스를 형성하고 서로 공감하며 하나가 되어 꾸미는 축제는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의미 있는 해방의 축제인 것이다. 전복된 세계를 함께 꾸려나가는 축제 속에서 사람들은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물량이 투입되고 상업화해가는 카니발의 경향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비인간화, 개인화, 자본주의화의 그늘 안에서 그것들을 전복하면서 펼쳐지는 퍼포먼스로서의 카니발. 그 축제가 오늘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바꾸어내는지를 탐색하는 심화된 논의가 추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빅터 터너 저, 박근원 역,『의례의 과정』,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빅터 터너 저, 이기우・김익두 역,『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2011.

빅터 터너 저, 강대훈 역,『인간사회와 상징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타스』, 서울: 황소걸음, 2018.

윤선자,『축제의 문화사』, 서울: 한길사, 2008.

A. 반 겐넵 저, 전경수 역,『通過儀禮』, 서울: 을유문화사, 1985.

황루시,「현대의 공동체와 축제의 기능: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구비문학연구』 제22집, 2006.6.30, 1-25쪽.

Borgeaud, Phillip, "Feste/Feiern: Religionswissenschaftlich", Hans Dieter Betz etc. (ed.),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F-H 3*, Tübingen: Mohr Siebeck, 2000.

Bräunlein, Peter J., "Victor Witter Turner (1920-1983)," Axel Michaels (ed.), *Klassiker der Religionswissenschaft: Von Friedrich Schleiermacher bis Mircea Eliade,* München: C. H. Beck, 2004.

Bräunlein, Peter J., *Zur Aktualität von Victor W. Turner. Einleitung in sein Werk*, Wiesbaden: VS Verlag, 2012.

Gennep, Arnold van, Monika B. Vizedom & Gabrielle L. Caffee (trans.), *The Rites of Passage*, London & Henley: Routledge and Kegan Paul, 1960.

Gerlitz, Peter, "Fasten/Fasttage: Religionsgeschichtlich," Gerhard Krause, Gerhard Müller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I,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3.

Hahn, Hans Peter, "Mary Douglas: Symbolische Anthropologie und die Entdeckung der Konsumkultur", Stephan Moebius, Dirk Quadflieg (Hrsg.). *Kultur, Theorien der Gegenwart*, Würzburg: VS Verlag, 2011.

Hall, Stuart George, Crehan, Joseph H., "Fasten/Fasttage III: Biblisch und kirchenhistorisch," Gerhard Krause, Gerhard Müller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I,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3.

Mezger, Werner, "Masken an Fastnacht, Fasching und Karneval Zur Geschichte und Funktion von Vermummung und Verkleidung während der närrischen Tage", Alfred Schäfer/Michael Wimmer (Hrsg.), *Masken und Maskierungen*, Wiesbaden: Springer, 2000.

Rosenfeld, Hellmut, "Fastnacht und Karneval: Name, Geshichte, Wirklichkeit" *Archiv für Kulturgeschichte* 51(1969), pp.175-181.

Sanner. Hans-Ulrich, ""A Message about Life": Performance and Reflexivity in Hopi Indian Ritual Clowning", Axel Michaels etc. (ed.), *Ritual Dynamics and the Science of Ritual* (IV),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1.

Schomburg-Scherff, Sylvia M., "Arnold van Gennep (1873-1957)", Axel Michaels (ed.), *Klassiker der Religionswissenschaft: Von Friedrich Schleiermacher bis Mircea Eliade*, München: C. H. Beck, 2004.

Turner, Victor, *The Forest of Symbols: Aspects of Ndembu Ritual*,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Turner, Victor, "Liminal to Liminoid in Play, Flow and Ritual: An Essay in Comparative Symbology", *Rice University Studies* 60: 3, 1974, pp.53-92.

<인터넷 자료>

배상복, 「[우리말 바루기] '축제'는 일본식 한자어」, 『중앙일보』, 2012년 5월 1일: https://korean.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052894&ctg=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독일 사이트 https://www.unesco.de/kultur-und-natur/immaterielles-kulturerbe/immaterielles-kulturerbe-deutschland/bundesweites-45 (2018년 10월 28일 확인).

독일국제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서 카니발을 소개하는 동영상: https://www.dw.com/de/die-wahrheit-%C3%BCber-deutschland-kar

neval/a-5246994

Michael Weier, "Fasten mit Starkbier: 'Die Menschen müssen bei Kräften bleiben'" Stuttgarter Nachrichten (2014. 03.07)
https://www.stuttgarter-nachrichten.de/inhalt.fasten-mit-starkbier-die-menschen-muessen-bei-kraeften-bleiben.a6fc34f3-601c-457e-883b-e3a30eb57fad.html

〈Abstract〉

Festival as transcending and crossing boundaries

Origin and Contemporary Meaning of Carnival

Kim, Tae Yeon

The Carnival Festival is famous for its humorous masks and the procession and parade of spectacular performers. While colorful dance, music and streets parties are important, the important thing for carnivals is disguised as something different from our daily life. In this sense, carnival is a festival originating from religious tradition, but it can be said that it belongs to a play genre that tries to cross a kind of boundary. It can also be seen as part of the *liminoid* that emerged in the modern world, which was noted by anthropologist Victor Turner.

This article attempts to show the past religious history of the carnival as a festival and tries to find out its modern meaning.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ly examines the fasting and tradition of the Lenten period in the Christian tradition as the origin of the carnival, and how the carnival began as a festival before the start of Lent. Then we would like to consider why carnivals are actively carried out in the modern and secularized society and accepted by modern people. In an effort to outline a modern meaning of the

carnival which is actively developing today, we will discuss anthropological works of mainly Turners which related to festivals and carnivals.

Key Words: Carneval, festival, fasting, Victor Turner, communitas, liminoid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접수되어 11월 30일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